

연말 군산불교 발전 기원

군산사암연합회, 화합 한마당 잔치

기해년을 마무리하고 경자년 새해 도약을 다짐하는 군산불교의 밤 행사가 열렸다.

군산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연)는 12월 14일 군산 한원컨벤션센터에서 군산지역 스님들과 김관영 국회의원, 강임준 군산시장, 김경구 군산시의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불교의 밤을 개최했다.

회장 도연스님은 대회사에서 "새해는 아름다운 봉사활동이 이어지고 화합과 상생을 위해 정진하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내년에 군산불교가 활발하게 일어서는 계기로 삼아 불자들이 하나 되고, 전북불교가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활발한 신행활동과 군산불교 발전에 공헌한 ㈜파슨텍 김선희 불자와 최수현 불자, 공군 호국 군성사 혜준 법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 군산여고 원아영 학생에게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연탄 불씨로 전한 온정

부산불교, 동구에 연탄 1만장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과 화엄승가회(회장 자인), 하람라이온스클럽(회장 천유솜)은 12월 15일 부산 동구 범일5동 매축지마을 일대에 자비의 연탄 1만 장을 전달했다. 화엄승가회장 자인 스님 제안으로 2017년 11월 시작된 이 행사는 부산시내 연탄사용 가구 680여곳 중 180여 가구가 밀집된 동구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범혜 스님은 "오늘 우리가 나눈 연탄이 훈훈한 불씨가 돼 동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로 번져 살기 좋은 부산, 불국정토 부산이 건설됐으면 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자인 스님은 "작은 것을 하나씩 심고 실천해나갈 때 자비의 복밭이 자라난다. 마음과 뜻을 나누는 불자가 되자"고 말했다.

천유솜 회장은 "연탄을 함께 나눈 여러분이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는 참 불자다. 뜻 깊은 행사에 함께하게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현대인의 마음 확장 명상으로 이뤄내길"

Interview

불교출판 대상 수상한 강명희 법사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백화도량 초심자 수행법 담은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
제16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많은 이들 수행에 관심 갖길"

"백화도량 도반들과 함께 낸 책이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에 선정돼 기쁩니다. 현대인들이 명상수행을 시작으로 마음 확장을 이뤄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불교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하는 제16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에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강명희, 담앤북스)이 선정됐다. 1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강명희 백화도량 법사는 이 같이 소감을 밝혔다.

강명희 법사가 수행모임 백화도량에서 12가지 명상법을 강의한 내용을 글로 정리한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은 남방불교와 북방불교에 공통으로 전하는 수행법인 부정관(不淨觀), 자비관(慈悲觀), 연기관(緣起觀), 수식관(隨息觀), 계차별관(界差別觀) '5정심관'을 현대적으로 변용한 명상법을 담고 있다.

1~3문 몸관찰 · 부정관 · 점관찰로 몸을 안팎에서 관찰하고, 4~6문 느낌관찰 · 음악명상 · 촛불명상으로 느낌과 감정을 관찰한다. 이후 만트라명상과 마음관찰로 마음에 직접 들어가 마음의 핵심을 바라본 뒤 걷기명상과 자연명상으로 자연과 하나되는 법을 익힌다. 끝으로 수식관을 통해 몸과 마음의 현상을 관찰하고, 자비관으로 수행에서 얻은 것을 회향한다.

강명희 법사는 "12문 수행법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사념처를 기반으로 현대적으로 풀어낸 것이다. 초기불교뿐만 아니라 대승불교의 수행법이 함께 연결되도록 재구성했다"며 "이런 수행프로그램은 매월 한 번씩 백화도량에서 초심자들을 위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화도량은 1992년 김호성 동국대 교수가 '천수경 읽기 백만인 운동' 중심도량으로 개원했다. 수행과 자비실천 공동체로서 서울 수유동에 거점을 두고, 최근 강원도 오대산자락에 명상수련원을 열었다. 1999년 심준보 법사에 이어 2001년부터 강명희 법사가 백화도량을 이끌며 정기적인 수련법회와 수행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인 강명희 법사는 초기불교, 아비달마, 대승유식 등 불교수행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며 20년 이상 수행했다.

강명희 법사는 "1년 동안 한 달에 한 가지씩 순차적으로 익히는 12가지 명상법은 명상에 입문하는 초심자뿐만 아니라 약간의 명상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며 "12가지 명상법은 서로 연결돼 있다. 몸, 느낌, 마음, 개념 순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상을 받았지만 자발적인 수행단체 백화도량을 인위적으로 홍보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은 강명희 법사는 "많은 사람들을 수행으로 이끌고, 마음을 확장시켜 대승불교의 실천적인 면을 인식하도록 돕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미얀마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

조계종복지재단, 홍수피해지역 대피소 · 다리 · 도로 등 건설

미얀마에서 6년째 재난위험 경감사업을 추진 중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현지 재난대응 인프라를 구축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은 "미얀마에서 지속적인 홍수로 피해를 겪는 주민들을 위해 다목적대피소와 다리, 도로를 준공하며 재난대응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12월 17일 밝혔다. 또한 상임이사 보인 스님은 12월 1일부터 미얀마 현지를 방문해 지역 정부대표 및 현지 협력단체, 마을주민들을 만나 지역 현황을 살피고,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공유했다.

복지재단에 따르면 미얀마 에와야디관구 몰레미얀준면 지역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위치해 우기에 물이 범람하면서 매년 홍수 피해가 발생한다. 복지재단은 미얀마 몰레미얀준 타운쉽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부터 아레예쥐 빌리지 트랙내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재난위험경감사업을 추진해왔다.



뽀도무마을 다목적 대피소 준공식.

복지재단은 "빈번한 자연재해 발생지역 중 접근성이 떨어지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 재난대응 취약 인구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재난발생 시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필요한 설비를 건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재단은 다른 마을로부터 접근성이 높은 뽀도무 마을에 화장실과 물탱크를 갖춘 50평 규모의 다목적 대피소를 세웠다. 대피소는 평소 초등학교로 사용하며, 재난발생 시 대피공간으로 활동되도록 라디오와 담요, 구급약품 등을 구비했다. 아울러 비예쥐 마을에 철근콘크리트 다리를 신축해 물이 범람해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따삐예준 마을 흙길은 420m 길이의 도로로 재탄생했다.

12월 3~5일 각 마을에서 진행된 준공식에는 뗀나인퉤 지역행정부 대표와 디위표 재난관리위원회 부대표, 마을주민들이 참석했다. 상임이사 보인 스님은 "재단이 미얀마에서 추진한 재난위험경감사업을 통해 재난과 맞서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졌으리라 기대한다"며 "새로운 대피소와 도로, 다리가 든든한 안전지킴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뽀도무마을 대표 민미 씨는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그동안 교육 받은 내용대로 적극 대처해 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마을에서 조성한 위원회를 통해 대피소 관리와 활용을 고민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혜암당 성관 스님 추모재

해인사, 18주기 맞아 원당암 미소굴 참배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는 12월 13일 대적광전에서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당 성관 스님의 18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방장 원각 스님을 비롯해 산중원로와 주지 현응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추모재는 원당암 미소굴 참배와 비림 부도탑 육법공양 등이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자비도량참법기도 2차 회향

창원 구룡사, 천일기도 200일 맞아 회향법회



창원 구룡사(주지 무성)는 12월 13일 설법전에서 자비도량참법 천일기도 200일 2차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서 주지 무성 스님은 "2차 회향을 맞아 천일기도가 생활 속에 지속되고, 자비심과 참회의 마음이 채워지길 바란다"며 "모든 중생의 잘못도 함께 나눠주는 것이 바로 공덕"이라고 법문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건 10주년 관음보살 개금

안산 동명정사, 12월 15일 점안법요식



안산 동명정사(주지 승운)는 12월 15일 경내에서 창건 10주년을 맞아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개금불사를 회향하고 점안법요식을 봉행했다. 동명정사 주지 승운 스님은 "종교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다. 동명정사 대중이 일체유심조를 새겨 함께 수행하고 정진한 공덕으로 관세음보살 개금을 무사히 회향할 수 있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윤호섭 기자

2020 경자년
신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현대불교신문에 깊은 애정과 물심양면 도움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지면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불기 2564년(2020) 경자년 새해를 맞아 온 누리에 부처님의 법 향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신년 특집 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더욱 밝아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법을 수호하고, 진리의 길로 대중을 이끄는 신문으로 거듭 발전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연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사	T. 02)2004-8216	F. 02)737-0696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제 목
불기2564년(2020년) 경자년 신년 축하광고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마감
2019년 12월 25일 수요일
jabi2018@naver.com

현대불교신문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